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12월 6일(금)

(음력 11월 10일)

Пятница

6 декабря 2019г.

№ 47(11686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2월 3일은 러시아에서 무명의 용사 기념일이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 영예광장에서 추념행사가 열렸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 활동

지난 10월 1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할린 한인협회와 영주귀국동포들의 1인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는 사할린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김홍지 고문, 사할린 한인 여성회 김웨철 회장, 권경석 회장(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등 영주귀국 동포, 그리고 배덕호(KIN 지구총동포연대), 하태군(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후 1인 시위는 파주(권경석, 엄부자, 이하일, 정일성), 김포(최정순, 이경희, 김축희, 박등자, 정광자, 김청자), 남양주(이수진, 양택호, 백화득, 전용소, 문기환), 인천(문정현, 정용범, 박성, 김일웅, 안간수), 화성(이춘기, 엄양자, 정용진, 진풍원), 양주(강상용, 찬후안, 이용바우, 장영수, 누근택)지역에서 참가하여 10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사할린 동포 문제 당장 해결하라!", "국회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국회 양쪽 정문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11월 까지 진행된 시민서명운동은 총 2,061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20일 외교통일위원장(윤상현)실

에 권경석 회장(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과 최상구 사무국장(KIN 지구총동포연대)이 접수하였다. 21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표> 특별법 제정촉구 시민서명

서울(등촌)	44
인천(삼산, 가정, 논현)	415
경기(김포, 파주, 화성, 양주, 남양주, 오산)	885
충남(아산, 서천, 천안)	176
충북(음성, 제천, 청주)	141
강원(원주)	40
경남(김해, 양산) 부산	229
온라인	131
총 합계	2,061

(8면에 계속)

모스크바에서 <극동 지역의 날>축제 개최

지난 12월3일(화) 모스크바 노비아르바트 거리에서 <모스크바 극동 지역의 날>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러시아 정부 부총리이며 극동연방구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투르트네브의 협력으로 지역 청년들을 극동지역에 유치하고 지역 관광의 발전과 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12일간 진행되는 축제의 일환으로 식품과 수공업품 전시회, 민속예술단 공연, 직업 박람회와 요리 활동교실이 조성되어 수천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 사할린주는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노비아르바트 거리 넓은 곳에 펼쳐진 대규모 극동 박람회는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12월3일-8일까지 진행한다. 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거리 공연으로 음악과 춤의 예술단이 공연을 하고 애니메이션 부스에서는 극동 지역 원주민들의 예술과 전통 산업을 만나볼 수 있는 활동교실을 매일 방문객들에게 펼치고 있다.

또한 마크로 지역(거시 지역)의 역사와 현재, 발전, 기념 문화에 대한 상호작용 프로그램도 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극동 연방구 11개 지역의 대표들은 상품 전시회를 펼친다. 여기에서 다양한 식품 세트와 기념품 구입이 가능하고 <사할린 카페>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사할린의 사랑과 열매로 만든 시럽, 판세(만두빵)를 제공한다.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축제 일환으로 모스크바 엑스포센터에서 주제별 부스를 마련한 극동 전시회가 열린다.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무명 용사들을 추모

12월 3일은 러시아에서 무명의 용사 기념일이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 영예광장에서 추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군인, 재향군인, 학생 및 지역 행정 및 입법부 관계자, 사회단체 등 대표들이 참여했다. 무명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이 행사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도 참가했다.

무명의 용사들을 추념하는 묵념 후 참가자들은 영예광장의 성화에 헌화했다.

사할린 동포 대표 6명, 민주평통 고문으로 임명

지난 3일(화) 사할린을 방문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블라디보스톡협의회 황돈연 회장과 박정훈 간사가 민주평통 사할린 고문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번 19기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한국 교민 19명, 고문으로는 러시아 동포 26명이 임명되었다. 사할린에서는 민주평통 고문으로 우리말 방송 김춘자 국장, 주한인협회 김홍지 고문,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사장, 주한인협회 오진하 고문, 임용군 사업가가 임명되었다. 이날 이들은 황돈연 회장에게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한편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협의회 제19기 출범식은 지난 10월 26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었는데 이에 사할린 고문들이 불참했다. 이번 만남에서 사할린 대표들은 민주평통 고문으로서의 입장과 항의 사항을 밝히고 이 문제점 해결 방안을 상의하여 블라디보스톡협의회 내에서 협의회 지도부와 힘을 합해 고문으로서가 아니라 자문위원으로서 권익 실행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제3회 <유사비코-2019> 컨퍼런스 개최

제3회 비즈니스 컨퍼런스 <유사비코-2019>가 12월5일부터 6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메가팔라스 호텔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에 예비 투자자, 사할린 경제계 대표, 극동 연방구 투자자 등이 참여한다.

행사의 목적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시행정부와 기업들과의 공동 투자 기획에 기업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행사 첫날에는 <대규모 투자>를 중점적으로 투자환경 실제 조성의 우수 지역과 우리 지역의 발전, 민관 협력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둘째 날은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투자'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70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시작

(본사 편집부)



유치원, 초등 및 고등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미를 가르치는 박경숙 선생

'노력과 인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필자가 40대 중반의 박경숙(러시아명 이리나 와실리에브나) 선생을 작년 가을에 있는 한국어 교사연수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돌린스크 한글학교 강사라고 소개받았다. 그 이후로 박 선생은 학생들과 함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된 많은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진실한 관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박경숙 씨가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는지 가장 궁금하기도 했다.

"저는 돌린스크 구역 비코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11학년을 마치고 '이리나'란 동명을 가진 2명의 동포 동창생과 유즈노사할린스크 국립사범대학에 입학 지원을 하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시로 갔었는데 그날 토요일이라 입학 접수처가 일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역사학에 대한 관심으로 역사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흑시나 해서 사범대 근처 있는 사범전문학교에 들렀는데 거기에서 '윤 옥사나 안드레예브나'란 분을 만났습니다. 그해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초등학교 교육 전공과 함께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는 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학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등생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학과에 입학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박 선생이 설명했다.

교육 기간은 2년 8개월이었는데요 공부 너무 재미있었고 한국에서 온 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박경숙 씨는

특히 최민호 선생의 강의를 잘 기억한다고 했다. 원어민에게서 언어를 배우는게 정말 행운이었다며 그때 학생들은 한국어 말고도 태권도, 한민족 무용, 장구 등을 배웠다.

1년이 지나 발표물로 <흥부와 놀부>를 무대에 올리기도 했고 그 외에 수많은 행사와 공연에도 참가했다. 그 당시에는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에 대한 열기와 열의가 상당히 높았었던 때였다.

한국어 실습도 제9중학교에서 하게 되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제9중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이곳에서 박경숙 선생은 6-7년을 근무했다. 한편으로 젊은 전문가로서 재미있었고 직업에 대한 열의도 있었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통신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국립사범대학도 졸업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9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러시아가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던 때인지라 교사들의 월급이 적은데다가 때로는 임금을 제때에 못 받거나 현금을 상품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지방 출신으로 박 선생은 친구와 함께 집을 임대해야 했다. 가정 형편은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마음에 드는 직업이라 해도 이런 생활에 좀 지쳐갔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계신 관계로 고민 끝에 그 당시 많은 사할린 동포들처럼 한국으로 가서 돈을 벌기로 했다.

박경숙 씨는 이렇게 한국을 약 4년간 오가며 공장, 식당 등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돌린스크 남자와 결혼해 돌린스크시에



정착하면서 아들을 낳았다. 첫째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이리나는 돌린스크 어린이 창작회관에서 수공예 교실 강사로 입사했다. 8년간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 2017년에 그녀는 돌린스크 구역 <올해의 교사>콩쿠르의 <보충교육 교사>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콩쿠르의 과제 중 하나는 자기 소개였는데 그때 박경숙 선생은 사범전문학교에서 초등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걸 알게 된 <솔넨쉬코(태양)>유치원 관계자가 이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박경숙 씨는 두 그룹에서 한국 동요, 율동 등을 통해 한국말을 가르치게 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9동양문학교에서 장기간 한국어 교사로 활약한 권견자 선생의 협조로

교육에 필요한 교재, 학품 등을 받기도 했다.

유치원의 교육 환경과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돌린스크 한인회 윤태옥 회장의 부탁으로 한글학교도 맡았다. 처음엔 제2중학교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수업을 공식적으로 어린이 창작회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기본적으로 수공예 교실 강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그룹과 고등학교 그룹에서 한국어 교육을 해오고 있다.

"제가 하는 일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업무가 취미이기도 합니다. 수공예 수업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취미이고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도 점점 보다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라고 박 선생은 소신을 밝혔다.

박경숙 선생은 부모님에게 많이 고마워 하고 있다. 부친은 1932년생으로 40세가 되어 박 선생의 모친과 결혼했다. 모친에게는 첫 남편과 사별 후 아들과 딸이 이미 있었다. 박경숙 씨와 오빠와의 나이 차이는 19년, 언니와는 15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들 가족에게는 막내인 박 선생을 동생보다는 '자식'과 같은 정도로 여기며 챙겨주기도 한다고 한다.

최근 콘크리트 공장에서 일하했던 부친은 근무 시간에 아주 무거운 화물이 떨어지면서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쳐 장애가 생기게 되어 더이상 힘든 일을 못하게 되었다. 가장으로서 돈벌이를 위해 탄광에서 일하려고 했지만 건강 상태로 그것도 할 수 없었다. 대

신 박경숙 씨의 모친이 열심히 일해야만 했다. 모친은 교대로 일했기 때문에 딸은 부친과 둘만이 집에 남아 저녁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가르치기도 했다. 늦동이 외동딸이라 아버지의 사랑이 넘쳤다고 한다.

경숙씨는 아버지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고 회상했다. '아버지'에 대한 애기에 목이 메이고 할 말을 잊지 못하는 그녀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박 선생의 선명한 어릴 적 기억 중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얼어붙은 나이바강가에서 스키를 타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하얀 눈, 상쾌한 공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즐거운 시간들, 아버지가 첫 스케이트를 선물한 것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글씨를 잘 쓰신 아버지의 모습이 그림 같다고 했다. 부친은 박경숙 씨의 첫째 아이 돌잔치를 치르고 몇 개월 후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녀는 부친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한다.

'노력과 인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니 오직 성실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박경숙 선생은 10년 전 첫 남편의 죽음을 극복하고 현재는 두 아들(12세와 6세)의 행복한 엄마로, 성실한 아내로, 재능 교사로,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재미있는 인생의 맛을 보고 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연초부터 사할린주에서 외국인 401명 출국 조치

올해 10개월간 사할린주 러시아 내무국 감시 감독 기능 실시의 일환으로 지역 외국인의 체류와 고용주의 사업활동에 외국인 유치의 합법성에 대한 감독으로 858건의 검토 조치가 이뤄졌다. 그 가운데 건설업 37건, 상업 12건, 일상 서비스업 22건, 주택 부문 674건, 기타 부문 113건이 나타났다.

이 보고 기간에 러시아 연방 지역에 체류 규정 위반으로 401건의 행정적 추방 조치가 내려졌다.

연방법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출입국 절차>의 요건에 따라 외국인 686명의 입국이 금지되었고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 체류기간 축소에 대한 35개 처리안이 통과되었다. 국외 추방으로 10개 조치가 이행되었고, 7명의 외국인은 재입국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 기간 외국인과 주택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외국인 거주 등록 절차와 허위 등록의 적발에 따른 활동의 일환으로 행정적 위반에 대한 124개 문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법 조항 중 19조 27항에 규정되어 있다. 허위 사실로 거주 등록을 한 외국인 1127명이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사할린주 내무국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기간에 적발된 범법은 291건(2018년 유사 시기에 160건)이 기록되었다. 이는 형법 조항 중 332항 (불법 국경 통과), 322.1항 (불법 이주 단체), 322.2항

(체류지와 거주지에 따른 러시아 연방 시민권자의 주민등록 위조), 322.3항 (외국인 등록 허위로 제출), 327항(위조, 허위 문서 작성과 유포, 국가 포상, 도장, 인쇄, 서식 용지 문서 위조 작성과 유통)에 따른 위반이라고 주 경찰청 홍보실이 전했다.

С начала года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дворили 401 иностранца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контрольно-надзорных функций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10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проведено 858 проверо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контролю за пребыванием мигран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и законностью их привлечения к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в том числ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 37, торговых объектов — 12,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 22, жилого сектора — 674, иных объектов — 113.

В отчетном периоде за нарушение правил пребы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ынесено 40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выдворении.

Кроме этог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закрыт въезд 686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Принято 35 решений о сокращении сроков пребы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сполнено 10 решений о депортации за пределы страны, процедуре реадмиссии подвергнуто 7 иностранцев.

В рамках работы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фиктив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и постановке на миграционный учет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отчетном периоде в отношении собственников квартир, а также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составлено 124 протокола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отрена статьей 19.27 Кодекса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

вонарушениях. Снято с миг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основаниям фиктивности 1127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деятельност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выявлению преступлений миграцион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за текущий период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91 преступление (за 10 месяцев 2018 года — 160) с признаками составов преступлений по статьям 332 (незаконное пересеч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322.1 (организация незаконной миграции), 322.2 (фиктив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граждан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есту пребывания ил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322.3 (фиктивная постановка на учет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и 327 (подделка, изготовление или оборот подде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аград, штампов, печатей или бланков) Уголовного кодекс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й полиции.

창작 노래 경연 대회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을 초대

창작 노래 경연대회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을 초대한다. 대조국 전쟁 승리 75주년을 맞이해 개최하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삶이여!> 통신 노래 경연에 시민들의 참가를 촉구한다. 이 행사는 제 28회 <2020-그린란드야> 이오시프 코브존 명칭 전국 창작곡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위해 작사가, 음악 창작자, 작곡가, 시인, 예술단은 2020년 3월 15일까지 이메일grinlandia-kirov@mail.ru로 신청서(노랫말, 시, 오디오, 동영상)를 제출해야 한다.

주소 : 610000, 키로프, 레닌 거리 80번지 혹은 브이콘택트 <http://vk.com/grinlandiakrov> 에서 그린란드야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규정, 참가조건, 신청서 양식 등을 알 수 있다.

(8면에 계속)

기획/특집-재한 러시아인의 삶

러-한 빅브릿지(Bigbridge)를 꿈꾸는 '러시아인 칼리지 부산'

"안토쉬가 안토쉬가 감자 캐러가자~ 빠담 뽀뽀, 빠담 뽀뽀", 10월 22일 화요일 오후2시 부산역 근처에 있는 '러시아인 칼리지 부산' 초등반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러시아 동요이다. 옆 반에서는 러시아 민요 '카츄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러시아인 칼리지 부산'은 지난 9월 1일 '2019 러시아인 칼리지'를 개강, 재한 러시아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주로 부산에 거주하는 러시아 근로자,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대상이다.

어릴 때부터 러.한 다문화 마인드 체득 학습

칼리지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열린다. 평일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8시간, 토요일에는 한국학교에 다니는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한다. 교과는 러시아어, 러시아 문화, 추가 코스 3개 과정이다.

추가 코스 프로그램은 민족의 정체성 교육에 집중한다. 러시아의 유명 과학자,

시인, 화가 등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조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학생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킨다. 지구화학 원소기호의 창시자 멘델레브, 대문호 톨스토이, 푸쉬킨 등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 인물들의 전설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러시아 역사, 러시아 예술의 우수성을 교육한다.

특별 프로그램도 있다. '한국 바로알기'코스다. 한국의 역사, 문화교육을 현장 체험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산시의 주요 행사에는 어김없이 전 학생이 참여하면서 한국 문화를 현장에서 체험한다. 지금까지 부산 시민의 날 등 30개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 러시아 문화도 알리고 한국 문화와 어울렸다. 설날, 한글날 등 한국의 명절과 공휴일에는 한복 체험, 한지 체험 등 한국 문화를 느끼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다문화 마인드를 체득시킨다.

러-한 체험교육도 있다. 극동 러시아 사할린에서 매년 5월에 열리는 '한국어 문화대회'를 부산에서도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초. 중반 학생 30명이 참석했다.

(7면에 계속)

아리랑 가락에 눈시울 '마음의 벽' 허물다

그리웠던 그 가락, 러시아에 울려 퍼진 아리랑 선율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 12월 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필하모닉홀에서 열린 'TKR·TSR의 만남, 국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콘서트'는 러시아 민요와 한국의 아리랑, 고려인 청소년들의 난타까지 한번에 어우러지는 무대였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동해 북부선을 달려 시베리아까지 가로를 그날을



강원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고려인 청소년들이 관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한국과 러시아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불과 연습 사흘 만에 훌륭하게 융화된 하모니로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국내에서 방송인으로도 활동한 일리아 수원대 객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연은 우수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 청소년들의 난타로 시작, 류드밀라 미하이로브나 프리모리 음악학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1부 무대를 통해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러시아의 춤', '백만송이 장미' 등 러시아 고유의 정서를 가진 음악들을 선보였다.

2부에서는 채운 춘천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가 쇼스타코비치 제3 모음곡 중 '왈츠 2번',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물다우' 등을 지휘하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어 김옥사나 우수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 보컬 교사가 오케스트라에 맞춰 '봉선화' 등을 부르며 한민족의 소리를 풀어냈고, 고려인 2세 안 알렉세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음악학교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그리운 금강산'을 지휘해 감동을 자아냈다.

마지막 곡은 북한 작곡가 최성환이 지은 '아리랑 환상곡'이 장식했다. 일제시대부터의 남북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담긴 장면들이 LED 화면들이 무대 배경으로 흐르자 곳곳에서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공연 후 기립박수와 함께 앙코르를 외치기도 했다. 처음에 서먹했던 학생

들도 아쉬움 속에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이날 연주한 알렉산드라 미헬(17) 프리모리음악학교 바이올리니스트는 "한국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 좋은 경험이 됐다.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만나면 공부하는 것이 많아 계속 함께 공연하고 싶다"며 "내년에 북한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쁘다. 한반도에 통일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수(13)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호른니스트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같이 연습하면서 가까워졌다. 소리도 좋아지는 것을 느껴서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장에는 정규 객석 600석을 훨씬 넘는 800여 명의 관객들이 몰려 동북아의 평화를 함께 기원했다. 현지 관객 타치아나 씨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동북아 평화 분위기가 지속돼 또다시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율리아 씨는 "철도를 잇는다는 공연 취지를 듣고 공감했다. 아리랑을 처음 들었는데 러시아에서 느껴볼 수 없는 정서를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정성훈 총연출은 "클래식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이날 허인구 G1강원민방 사장은 블라디미르 페레크레스트 프리모리 음악학교 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원도민일보 김진형 기자]

2019년 12월 02일

국제보건의료재단, 사할린에서 1세 동포들을 위한 <현지건강 관리 프로그램> 실시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을 통해 2016년부터 사할린 1세 동포 한국 초청 진료 사업을 해오고 있다. 사할린에 잔류하는 1세 어르신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약해져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로 최근에는 초청 진료 사업에 잘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올해부터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공동으로 <현지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 11월 25~30일간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을 비롯해 본 재단과 한국 보건복지부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단(총 6명)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한국 대표단은 주한인협회가 섭외한 사할린 의사팀,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한인협회 측에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이 세르게이 청년부 회장, 치매 예방활동을 맡은 아니와 한인회 배영희 부회장,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강팔용 가수와 함께 움직여 네벨스크, 고르노사위드스크, 토마리, 크라스노고르스크와 마카로브를 방문했다.

각 곳에서 의료진들은 1세 분들에게 간단한 일반 건강(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고 주 한인회 측에서는 치매 예방활동을 펼쳤다. 또한 주최 측은 어르신들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강팔용 가수의 노래를 선사했다. 그리고 선물로 각 어르신에게 한국산 쌀 1포대씩(10 kg)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진행자들은 몸상태로 행사장을 직접 찾지 못한 어르신들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하고 쌀을 전달했다.

마카로브한인회 고영순 회장은 "아주 좋은 행사였어요. 조직 진행을 잘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마카로브구역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1세 어르신들이 많이 고마워 하시고 만족하십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에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표명했다.

지난 28일 마지막 지방 일정을 마친 후, 29일 한국 대표단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1세 동포 한국 초청진료사업으로 한국에서 진료와 수술을 받은 일부 어르신들과 만남을 가졌다. 보건의료재단과 보건복지부 대표들은 한국에서 진료받은 이후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진료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어르신 대부분은 진료를 잘 받았다고 하고 다시 한국에서 진료 받고 싶다는 마음도 전했다.

국제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사할린 1세 동포 한국 초청진료사업은 계속할 예정이라 밝히고 2020년에도 사할린 여러 지방에서 <현지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주한인협회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усская Гимназия в Пусане – проводник в межкультурном диалоге России и Кореи

Как детей из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емей учат не забывать родину, а также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культуру своей страны в Южной Корее



Ученики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Фото: PrimaMedia Korea

Русская Гимназия в Пусане, обучая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детей из семей, приехавших по трудовому контракту, и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тала своего рода проводником в межкультурном диалоге России и Кореи. О том, как происходит обучение, а также чем еще занимаются ребята — в репортаже PrimaMedia Korea.

"Антошка, Антошка, пойдем копать картошку...", — доносится из одного из классов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В соседнем классе ученики разучивают песню "Катюша".

В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которая начала очередной учебный год 1 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с традиционного Дня знаний, обучаются русскоговорящие дети из семей, приехавших по трудовому контракту, 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Занятия в школе проходят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пятницу ежедневно для детей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по субботам — для детей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Программа обучен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российские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стандарты. Помимо обязательных предметов —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 для всех детей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курсы, целью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приобщение к 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Программы "Путешествуем по России", "Культурный код", "Сказкотерапия", "Русский в рифму" помогают расширить познания о России, ее истории и о знаменитых людях, таких как Менделеев, Толстой, Пушкин.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знанию в детях формируется гордость и уважение к своим историческим и этническим корням, решается проблема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Обязательным для учеников является и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Ученики не только изучают язык страны проживания, но и ее историю и культуру, а также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город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г. Пусана, знакомя его жителей с русским народным творчеством. За два с небольшим года школа провела около 30 больших и малень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чиная с камерных мастер-классов "Поделки из бумаги Ханджи" и заканчивая масштабным праздником

"Новогодняя елка по-русски", на который пришло более 500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и.

Ученик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и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акциях. Например, около 30 учеников среднего и старшего звеньев ежегодно соревнуются в конкурсе на знание традиций Кореи, проводимо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изуч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а программу "Русский как семейный" приходят дети из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емей, обучающиеся в корейских и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х школах. Количество учеников с 20 человек в 2017 году выросло до 80. Занятия по программе "Русский как иностранный"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ля корейских учеников, нацеленных на сдачу экзамена ТРКИ и обучение в России.

Для взрослой аудитории 4-5 раз в год проводятся бесплатные лекции — "Вечера в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Первая встреча "Юридический ликбез" прошла в октябре 2017 года. Многие русскоязычные жители Кореи не знакомы с социально-правовыми нормами Кореи и находят их сложными для понимания в силу незнания языка. Приглашенный на лекцию корейский юрист поделился со слушателями информацией о правилах заключения трудового договора и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жилья.

Освещающая жизненно важные темы, такие как поступление в ВУЗы Кореи иностран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Пусана, поправки к Закону о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ах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этот цикл стал "путеводной звездой" для многих русскоязычных граждан. Каждая такая встреча собирает 50-70 человек, что говорит об их популярности в Пусане.

Мост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Знаменитый писатель Антон Чехов сказал: "Сколько языков ты знаешь, столько раз ты человек". Это утверждение и стало ключевым при создании школы.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состоялась 9 октября 2017 года, ч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усилиям ее основателя — Тен Жанны Владимировны 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оссии в Пусане.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В течение пяти дн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бывали в Невельске, Горнозаводске, Томари, Красногорске и Макарове, где встретили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оекта.

Благодарим

28 ноября 2019 года в городе Макарове состоялось значим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реклонный возраст — не преград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СК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программу входило: встреча с врачами и посещение больных на дому, обед, концерт, вручение подарков (мешок риса).

Актив Макар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и их дети искренне благодар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РК и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нашего района та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настоящим праздником.

Выражаем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талантливому исполнителю, музыканту Петру Кану, 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Ани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Пе Анжеле и председателю молодёжного отдела РООСК Ли Сергею.

Благодаря им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лучилась яркой и незабываемой.

29.11. 2019 г.
г. Макар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Макар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Ко Ен Сун

О книгах сахалинских писателей поговорили на читатель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Читатель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ённая произведениям сахалинских писателей, состояла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2 декабря. Текущий год стал юбилейным для поэтов и прозаиков Владимира Гриня, Романа Хе, Сергея Яна, Владимира Губина и Анны Сафоновой.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 качестве почётных гостей и экспертов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Николай Тарасов — поэт, прозаик, ответственный секретар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Лира",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Покатайкин — учи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в недавнем прошлом, старейший читатель, волонтер библиотеки, участник многих литературных и твор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Владимир Гринь — прозаик,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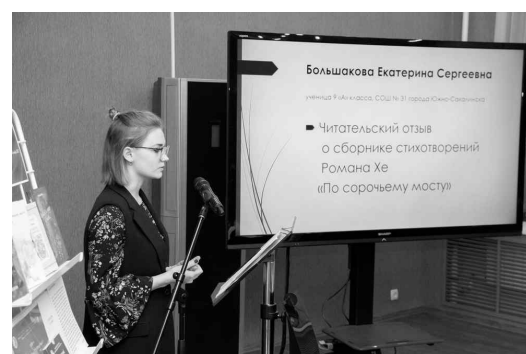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о заявлено шесть очных и шесть заочных докладов, из которых восемь прозвучал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Докладчиками выступили учащиеся средних и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иблиотекари, а слушателями — педагоги, литературоведы, писатели и читатели.

После краткой биографической справки о каждом писателе прозвучали доклады по следующим произведениям: повести "Пуская я умру у тебя..." Владимира Гриня, путевым заметкам "Страна отцовских грёз" Сергея Яна, книге стихов "По сорочьему мосту" Романа Хе и сборнику рассказов "Прекрасные нечестивцы" Анны Сафоновой.

Два мнения на произведение В. Гриня "Пуская я умру у тебя..." высказали студентки второго и третьего курсов факультета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Екатерина Шуртинова и Александра Малеева.

Рецензию на книгу А. Сафоновой "Прекрасные нечестивцы" представила заочный участник конференции, библиотекарь центральной моде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и Смирновской ЦБС Ольга Вобленко. О лекс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ях сборника прозы Анны Сафоновой рассказала студентка третьего курса факультета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Александра Черкасова.

Заочная участница конференции из Углегорска Регина Александренкова, член молодёжн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Литературный круг" (руководитель Тамара Жунёва), прислала доклад по книге Романа Хе "По сорочьему мосту", который озвучила слушателям главный библиотекарь центра чтения СахОУНБ Евгения Доронькина.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 поэзии Романа Хе поделилась Екатерина Большакова, ученица 9 "А" класса школы №31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 Лейла Балакирева). "Страна отцовских грёз" Сергея Яна не оставила равнодушной участницу конференции Светлану Болотину, заведующую библиотекой Шахтёрска (Углегорская ЦБС), которая прислала заочный отзыв на этот своеобразный дневник воспоминаний автора, проникнутый искренними чувствами любви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а также глубокой восточной мудростью. Тему семьи в повести писателя затронула студентка третьего курса филолог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Александра Малеева.

По итогам выступлений состоялось обсуждение,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и комментариями.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СахГУ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отметила, что предмет "Литературное краеведение" давно преподаётс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и благодаря различным публикациям и материалам извест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писателей позволяет студентам-филологам изучать дисциплину в полном объёме.

Валерий Покатайкин выразил пожелание организаторам проводить читательские конференции как можно чаще, а Владимир Гринь с воодушевлением принял все отзывы о своей книге и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В заверше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ференции, сотрудники центра чтения поблагодарили докладчиков, экспертов и слушателей з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конференции и пригласили их 10 декабря в библиотеку на презентацию новой книги Анны Сафоновой "Лето на вырост". Также слушатели ответили на вопрос "Что такое сахалинский писатель?". Сво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предложил писатель Николай Тарасов: сахалинский писатель — это писатель-краевед и краелюб. С докладами участников конференции в дальнейшем мож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библиотеки; ссылка размещена в [группе центра чтен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дложение спикера парламента РК по решению споров между Сеулом и Токио подверглось критике

Жертвы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проводившейся Токио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го протектората над Кореей, выступили против предложения спикер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Мун Хи Сана по разрешению спора вокруг компенсации, которую они потребовали от Японии. 27 ноября протестующие собрались перед зданием парламента. Спикер, в частности, ранее озвучил идею о создании фонда помощи жертвам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торый должен формироваться за счёт средств компаний и частных лиц двух стран. Южнокоре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читает, что подобный подход смягча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мимо этого, под вопрос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процедура подготовки инициативы Мун Хи Сана. Поскольку сами жертвы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не были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ны об этом до тех пор, пока спикер 5 ноября не озвучил предложение на лекции в япо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асэда. Своё недовольство в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е выразили также и жертвы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Мун Хи Сан, между тем,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отестующими, заявив, что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не принималось никаких окончательных решений, а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деталей планируется выслушать мнение самих пострадавших.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самолёт США совершил облёт над территорией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ША вокруг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ктивизировалас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евер в прошлый четверг провёл испытания РСЗО.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портала Aircraft Spots,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самолёт США Boeing RC-135 в этот понедельник совершил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полёт над Сеулом и столичным регионом. Это обычная практика для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США для сбора разведанных после запуска Севером ракет. Ранее, 30 ноября,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самолёт ВВС США "Lockheed U-2" совершил облёт территорий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винций Канвондо и Чхунчхондо. Обычно данный самолёт совершает 7-8 часовой облёт в 20-ти км от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Это позволяет провести съёмку военных объектов и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Севера вглубь на 60-70 км от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и провести прослушивание переговоров.

Rolling Stone внесла в список 50-ти самых важных событий в мире музыки BTS, Psy, Pink Fong

Авторитетный американский журнал Rolling Stone опубликовал список 50-ти самых важных событий,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в мире музыки за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с 2010 по 2019 год. Среди них деятельность BTS в США, хит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евца Сая (Psy) «Каннамский стиль» и сборник детских песен «Семья акул» от Pink Fong. Список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25 ноября. В Rolling Stone рассказали о том, что BTS была приглашена открыть серию летних концертов на телевизионное шоу Good Morning America, а также Saturday Night Live и стала единствен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группой с полностью распроданным туром по Америке. Издание призывает посмотреть на успехи BTS тем, кто ещё сомневается в том, что К-POP прочно обосновался в Америке. Касательно песни певца Сая (Psy) «Каннамский стиль» в статье говорится, что этот хит своим танцем и видео-клипом познакомил сотни миллионов людей с корейской массовой музыкой. Помимо этого, был упомянут сборник детских песен «Семья акул» от Pink Fong, компании, которая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детск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контентах. Она написала сборник «Семья акул» на основе североамериканской детской песни Baby Shark. В чарте Billboard Hot 100 он занял 32-ю позицию.

Актриса Сим Ын Гён получила награду япо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ктриса Сим Ын Гён была удостоена награды за лучший дебют актрисы на 29-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японском городе Тама - Tama Cinema Forum. По сообщениям продюсерской компании ANDu Entertainment, премия была вручена за роль в фильме япон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Мичихито Фуджи "Журналист", в котором актриса исполнила главную роль. Сюжет фильма повествует о скандалах нынешней политической власти Японии и критикует обратную сторону государства и журналистик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им Ын Гён возвратилась в РК и готовится к съёмкам сериала "Мини-игра" телеканала tvN.

(RKI)

Владивосток: молодые музыканты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сполнили «Континентальную мечту»

1 декабря 2019 года в городе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помещении Большого 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Приморской краевой филармонии состоялся совмест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церт под названием «Континентальная мечта» молодежных симфонических оркестро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Химан Рэйль» (в переводе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Надежда.Рельсы») и Приморским краевым колледжем искусств г. Владивостока.

Участник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оекта стали городской молодежны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города Чунчхо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молодежный оркестр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ев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Молодежны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города Чунчх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ыл основан в январе 2009 года с целью поиска и становления талантливых молодых музыкантов, которые бы впоследствии руководили будущим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развивали культуру, искусство и молодежную культуру на местах. В 2012 году оркестр провел обменные концерты с Манильским симф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на Филиппинах, где вызвал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со стороны музык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страны. Через 2 года, в августе 2014г., состоялся сольный концерт коре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в Золотом зале Вен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филармонии, который пользуе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именитых музыкантов. Зал рукоплескал стоя. Оркестр у себя в стране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 два регулярных концерта и организывает музыкальный лагерь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Музык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продолжает играть ведущую роль в возрождении молодежной музык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Дирижером молодежного оркестра является Че Юн, доцент Музык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Хёнсунг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ртнером корей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стал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автономно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Приморский краевой колледж искусств», выполняющее задачи по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со средни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для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сферы. Колледж искусств основан в 1957г.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колледже обучается 552 человека. Студенты музыкального заведения постоянно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музыкальных конкурсах – от краевого уровня д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 всегда становятся лауреатами. Помимо учебных занятий, студенты проходят концертную практику. В процессе концертной практики проверяетс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готовность будущего специалиста к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уденты в публичных выступлениях имеют прекрас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рить сво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умение на концертной эстраде, повысить исполнительское мастерство и обрести уверенность в выборе профессии. Дирижер оркестра колледжа – Людмила Михайловна Колмогорова,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РФ,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колледжа.

Каждый музык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подготовил свой блок произведений. Корейский оркестр предложил для выступления «Вальс» из Джаз-сюиты №2

(Д.Шостакович), «Влтава» из симфонической поэмы «Моя Родина» (Б.Сметана), фантазию на тему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Ариран» в обработке севернокорейс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Че Сон Хван. В блоке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го колледжа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Танец рыцарей» из балета «Ромео и Джульетта» (С.Прокофьев), «Полонез» (М.Огинский), «Русский танец» из балета «Лебединое озеро» (П.Чайковский) и попури на темы популярных российских песен «Подмосковные вечера», «Катюша», «Журавли»,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В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были также включены выступления музыкальных номеров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и языка г.Уссурийска. Молодежный ансамбль барабанщиков Центра эффектно открыл концерт, 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вокала Центра Оксана Ким замечательно исполнил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родную песню «Бальзамин» и песню «Помню тебя» из корейского мюзикла «Герой».

Корейский оркестр приехал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за четыре дня до концерта, и оба коллектива совместно, в составе 75 человек, провели репетиции. Дирижеры обеих стран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каждый дирижирует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своего блока, а оркестр в объединенном составе исполняет все произведения. Результатом усиленных репетиций стал успешный концерт в Большом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филармонии г. Владивостока. В этот день в зале «яблоку негде было упасть». Зрители с восторгом воспринимали каждое музыкальные произведение и достойно благодарили музыкантов бурными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и возгласами «браво!».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ев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в концерт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сахалинец – преподаватель оркестрового отделения Центральной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ирижер дет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школы Ан Алексей. Под его руководством объединен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олодежны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исполнил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ую музыку «Золотая гора Кымгансан». Это выступление вызвало бурю аплодисментов у зрителей,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о немало гостей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тановку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ы осуществил режиссёр Тен Сон Ху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 которого имеется большой опыт проведения совмест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Ольга Р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570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РП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ровень довер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бизнеса к власти будут проверять на каждом инвестсовете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2 но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о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едложил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пройти анонимное онлайн голосование. Оказалось, областн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доверяют в среднем на 60%, а муниципальным властям – на 46%.

Оценить доверие можно было по 10-бальной шкале – от 0 до 100%, где каждый шаг – +10%. В голосовании губернатор предложил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бизнеса и общественникам. Госслужащих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просил воздержаться.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анонимно ответить на ряд проблемных вопросов,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встающих перед островными бизнесмена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смогли оценить качество дорожных сетей,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площадок для веде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оступность кредитных ресурсов и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защите интересов инвесторов. Голосующие должны были выбрать один из пяти вариантов: «очень плохо», «плохо»,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 «хорошо» и «отличн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 госслужащие голосовали отдельно.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и те, и другие поставили оценку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

– Если мы хотим улучшить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условия у нас в регионе, то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мониторить те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озвучиваю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 сказал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 защите пра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Коваленко. – Сегодня на инвестсовете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внимания уделено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Голосование стало одной из самых оживленных его частей. Особенно, когда оценивалас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чих групп. У нас кажды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вечает за какое-то направление по улучшению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условий. И «кредит доверия» зампредам бизнесмены дали большой. Практически у каждого – около 50% доверия.

Также на инвестсовете обсудили изменения в проекте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Всего поступило 73 замечания, 50 из которых – от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6 – от членов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 – о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бизнеса и 9 – от неравнодушных граждан. Минист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Успенский сообщил, ч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64 замечания уже устранены. В декабре обновленный документ повторно отправят в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 на утверждение.

Кроме того, Алексей Успенский отчитался о работе по поручениям, данным в рамках инвестсовета. Из 109 – неисполненных нет, 3 –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ходятся на контроле.

На контроле находится и сервис «Бизнес.Сахалин.онлайн», которым удовлетворена

только половина пользователей. Для упрощения работы платформы и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оказания услуг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уменьшить количество тематик, внести доработки в систему, а также повторно проработать обращения, по которым была дана отрицательная оценка.

– Люд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должны уважать и любить население, – сказал в финале заседания инвестсовет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То же самое относится к бизнесу: если решение в интересах бизнеса – это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 резюмиров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опрос работы сервиса вновь вынесут на обсуждение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Ближайшее состоится в середине декабря.

Руковод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твердили очередные KPI

Обсуждение показателе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состоялось 2 ноября 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которую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не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ыступил с инициативой поднять требования к работе островных чиновников. Это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вывести жизнь в области на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ый уровень и повысить доверие к власти.

– Введение KPI, или ключевых показателе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 это очень важный шаг по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работы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Это не просто какие-то абстрактные цифры, а реальные цели, к которым чиновники теперь обязаны стремиться. А отвечать за выполнение своих задач руководители будут рублем. Причем, мы будем оценивать их работу ежеквартально и раз в год. Это позволит держать все показатели на контрол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 примеру, перед областным министром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Еленой Касьяновой поставили задачи – понизить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в регионе, увеличить естественный прирост населения 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активной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а также поднять уровень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качеством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Кроме того, чиновник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з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Социальная банковск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и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А главе областного минобра Наталье Мурашовой необходимо поднять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егион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удут уделять результатам ЕГЭ. Сегодня юные островитяне сдают итоговый экзамен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с показателем выше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ого. Успехов необходимо достигать и в других дисциплинах.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 повлияет на качество среднего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 работа в эт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также будет учитываться. Кроме тог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Натальи Мурашовой должно расти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Доходы министра также будут зависеть от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местами жителей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региона.

Показатель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спорта Сергея Буренкова – доля жителей,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занимающихс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Также чиновник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за количест-

во област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которых включили в список кандидатов в сборные команды РФ. Кроме того, для главы ведомства важно, чтобы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массовых физ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проекте «Активное долголетие», а на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ках острова тренировались олимпийские и паралимпийские команды.

Напомню, на этой неделе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роходят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сессии, на которых окончательно утверждают KPI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анее ключ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установили для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а Зайцева, министр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лексея Успенского, министра имущественных и зем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Светланы Налбатовой, а также для руководителя объединен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Инны Павленко.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ключ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утвердят для всех сахалински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идут масштабные изменения структур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что здесь будет два главных блока –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жителями. Для этого запущено несколько каналов: горячая линия «1-300» и «Окна доверия в поликлиниках», сервисы «Сахалин.онлайн» и «Бизнес.Сахалин.онлайн», принято распоряжение об обращениях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Минстрой России согласовал программу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охинцев

Документ был досрочно подготовлен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выполнения поруч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ограмма по расселению жилых дом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повреждены в результате землетрясения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в 1995 году, рассчитана на период с 2020 по 2024 годы.

– За это время мы планируем расселить порядка 162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оврежденного жилья, где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7 тысяч человек,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Что касаетс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то на эти цели необходимо направить 15,6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том числе: 5,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и 9,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из областного. Средства со стороны субъект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мероприятий уже определены.

Напомним, сегодня Охинский район – лидер по объемам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в регионе. По мн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хинские власти должны вплотную заняться этой проблемой и планиров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 5-10 лет вперед, чтобы ускорить ее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а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была поднята губернатор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заседании Госсовета, которое прошло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рамка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резидент дал поручение – направить в Охинский район комиссию для обследования этих дом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усская Гимназия в Пусане – проводник в межкультурном диалоге России и Кореи

Как детей из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емей учат не забывать родину, а также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культуру своей страны в Южной Корее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Задача состояла в создании очень важного проекта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ой общины, проекта, способствующего формированию многокультурного и двуязыч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обучения русских детей. Потому что многие проблемы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жителей были связаны с незна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едь в семье эти дети говорят по-русски, а в корейской школе требуется хорошее владение языком страны проживания. Да и к тому же Корея не является страной культурного плюрализма. Внимание 5 тысяч русскоязычных жителей Пусана было приковано к этому знаменательному событию. Русская Гимназия станет местом, где впервые русскоязычным жителям Пусана будет оказана помощь в интеграции в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С того момента прошло 2 года. Учителя с большой радостью замечают первые шаги своих воспитанников и первые академические победы.

А работает с ученикам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 в составе 8 человек. Все они приглашены из России. За плечами у каждого из них большой опыт преподавания. Они приехали в Пусан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 Владивостока, Томска, Перми. Все они с большим энтузиазмом делятся своим знанием с детьми, рожденными 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Корее. Родной русский язык в будущем станет для них неоценимым богатством. И как личное достижение, так 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именения в межкультурном аспекте. С больш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они

относятся к своему делу – воспитанию и образованию будущего поколения. И именно они, учителя, являются проводниками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на пути к глобализации и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ации.

Русская Гимназия в Пусане взяла на себя роль своеобразного мост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то есть является связующим звеном между этими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И первый шаг для этого уже сделан. В будущем именно ее выпускники могут сыграть большую роль в расшире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стать послами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кто знает, может Русская Гимназия внесет свою лепту в идею созда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ед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 будущем.

Интервью с основателем и руководителем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Тен Жанной Викторовной:

— Как родилась идея создания такой школы?

— Имея филолог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я всегда 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проблемой полилингв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Я защитила диссертацию по лингвис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МГУ. И с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меня связывает давняя 30-летняя дружба, с момента поступления на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ий и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 1990 году.

В 2017 году так оказалось, что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ом в Пусане становится Востриков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чья дочь была моей студенткой, когда я работала преподава-

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ИСАА при МГУ. Именно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оказал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у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как человек,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й как в популяр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за рубежом, так и в двуязыч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для русских детей вообще.

— Как Вы оцениваете реакцию общества?

— В начале наши мног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спытывали большой недостаток информаци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а любые темы, тем более образования. Мы вели разъяснительные беседы о важности сохранения род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Если не поддерживать его изучение с детства, то к подростковому возрасту желание у ребенка может совсем пропасть. Этой проблеме был посвящен один из наших "Вечеров в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под названием "Многоязычный ребенок с пеленок".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которые приходят к нам на разные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я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выросло с 20 до 80 человек. И мы до сих пор получаем большую поддержку от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оссии в Пусане.

— Какие ваши планы?

— В силу раз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система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Пусане, не является совершенной. И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а поддерж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ежду Путиным и Мун Чже Ином был подписан план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девяти мостов". Он касается таких сфер, как судостроение, рыболовство,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а и другое. Всего 9 сфер. Было бы хорошо, если к этим 9 добавили еще одну сферу – гуманитарную. 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ли бы создание и аккредитацию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с двуязыч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на русском 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орреспондент PrimaMedia в Корее
Пак Гу Сон

러시아 의사·의대생의 한의학 정규교육 길 열린다

한의학진흥원-러시아 태평양국립의대-대구한의대 3자간
교육협력 MOU 체결



오는 2021년까지 러시아 의사·의대생을 위한 한의학 정규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의학 교육은 물론 현지 교수진 양성 등을 통해 러시아 한의학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의 해외 한의학 교육사업 일환으로 한국 한의학 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지난 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태평양국립의학대학(총장 V.B. Shumatov)과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3자간 러시아 한의학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서 세 기관은 한의학 교육 정규 프로그램 개설과 교수 인력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협력 분야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국립의학대학 의과대학 학생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방재활의학, 한방내과 등 한의학 교육과정 설계와 학습자료를 개발, 2020년 시범과정을 거쳐 2021년까지 한의학 정규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된다.

태평양국립의학대학은 러시아 수도권(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외 우랄산맥 동쪽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대학으로, 연해주, 캄차카, 사할린 등 '극동지역 의학대학 클러스터'의 코디네이터 역할과 이곳 의료인 교육과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과 2014년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해 한의학 개론, 경혈학, 침구학 등 기초와 임상 강의를 특강 형태로 진행해온 태평양국립의학대학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러시아 한의학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한의학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한의학의 유라시아 진출 거점 확보는 물론 향후 북한과의 전통의학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러시아 태평양국립의학대학을 발판으로 국내 한의학 관련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해외 곳곳에 진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태평양국립의학대학 V.B. Shumatov 총장은 "러시아는 한국 한의학의 우수 인력과 한의학의 강점인 한방재활의학 등 교육 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의학 정기 강좌, 인력양성과 함께 양국의 교류협력을 더욱 넓혀나가자"고 강조했다.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도 "한의학의 글로벌 인재양성과 산업연계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우리 대학이 한국한의학진흥원과 러시아에 과학화, 표준화된 한의학 임상 교육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의 대표기관인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초청연수, 해외 교육, 한의사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EU,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의약을 세계에 전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기획/특집-재한 러시아인의 삶

러-한 빅브릿지(Bigbridge)를 꿈꾸는 '러시안 칼리지 부산'

(3면의 계속)

칼리지 교육과정은 2개 분야로 운영된다. '가족어 러시아어 반'과 '외국어인 러시아어 반'이다.

'가족어 러시아어 반'은 주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자녀들이 대상이다. 2017년 개교 첫회 20명에서 올해 80명으로 늘어났다. '외국어인 러시아어 반'은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기업인들과 러시아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수강한다.

성인들을 위한 무료 시민 특강도 연다. 2017년부터 3개월에 한번씩 '러시안 칼리지의 밤'을 개최한다.

맨 처음 시작한 2017년 '러시안 칼리지의 밤' 기획 프로그램은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재한 러시아인에게는 한국의 법률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오랜 사회주의국가에서 생활해 온 러시아인들로서는 서방세계의 법질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교육을 위해 러. 한 전문변호사를 초청했다. 노동법과 주거임대계약 등 개인 권리보호법을 강의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의 사업방법, 한국학교 입학절차, 한국 내 관광안내, 알뜰살림 길잡이 등 재한 러시아인들의 생활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가이드한다. 한 회당 50~70명이 수강신청을 하는데 호응이 대단하다.

본국에서 온 8명의 '러-한 빅브릿지(Bigbridge) 전도사'

러시아의 대문호 체호브가 말했다. "언어를 많이 아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이 그만큼 폭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안 칼리지 부산'의 설립 취지이다.

'러시안 칼리지' 개교일은 2017년 10월 9일. 사할린 출신 정 잔나 블라디미르노브나 선생과 러시아 부산 총영사관이 합심해서 개교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러시아권 사람들을 위해 뭔가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제일 먼저 '다문화사회와 이중 언어'에 대해 고민했다. 러시아인 2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의 중심에는 언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가정에서 익히는 모국어와 학교 교육의 언어는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다원주의 국가경험이 없는 나라여서 더욱 그랬다.

개교식 날, 부산시에 거주하는 5,000여 러시아인 근로자, 장기 체류자 등 재한 러시아 교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러시안 칼리지 부산'의 개교는 한국사회 적응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러시아어에 조금씩 눈을 뜨는 것 같아 뿌듯해요."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떠들떠들 엄마나라의 말, 아빠나라 말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는 것이 보람 있다고 했다.

성인 러시아 교포들을 위한 무료 교민특강 '러시안 칼리지 부산'의 교사는 총 8명이다. 러시아 본토에서 섭외했다. 모두 경험이 풍부한 전문교사들이다. 언어교육 선생은 극동연방대학과 모스크바에서 초청했다. 문화교육 선생은 톱스크, 페르미에서 모셔왔다. 8명의 교사들은 이국땅에서 교포 2세들을 위해 교육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러시아인 자녀들의 모국 언어교육은 개인적으로나 국가(러.한)적으로나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들은 러시아와 한국이 추구하는 세계화와 국제화의 전도사임을 자처한다.

'러시안 칼리지 부산'은 '러-한 빅브릿지(Bigbridge)'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즉,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큰 다리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그 목표의 전단계로 러시아인 아이들의 모국어 교육을 시작했다. 향후 이 아이들을 통해 러. 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러. 한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고, 러. 한 시민사회를 소통시키고자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러시안 칼리지 부산'의 최종목표는 러. 한 공생국가를 완성하는 데 있다.



'러시안 칼리지 부산'설립자 정잔나 블라디미르노바 교장과 인터뷰

-설립 배경과 제반 스토리를 알고 싶다

언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이중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다. 내가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받은 박사논문이 한국어 관련 연구였다. 한국어와 인연을 맺은 지가 1990년(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키 국립사범대학 한국어.영어과 입학) 이니까 올해까지 30여 년간 한국어를 연구해온 셈이다.

2017년 당시 마침 러시아 부산 총영사였던 위스트리코브 알렉산드르 세르게이위츠님의 딸이 내가 모스크바 국립대학 한국어학과 교수로 있을 때 제자여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총영사님도 교포 자녀들의 모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교육에 관심이 많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

'러시안칼리지 부산' 설립자 정잔나 블라디미르노바 박사

-'러시안 칼리지 부산'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가?

처음에는 재부산 러시아 교포 사회가 긴가민가 했고, 홍보도 부족했다. 영사관을 통해 교포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조기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전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모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사춘기부터는 인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성인 프로그램인 '러시안 칼리지의 밤'에 참가하는 교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개교 첫 해 학생 20명이 지금은 80명으로 늘었으니 4배나 발전한 셈이다. 현재 러시아 부산 총영사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러시안 칼리지 부산'의 향후 포부나 계획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재부산 러시아 교포 자녀들을 위한 전방위 교육시스템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포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작년에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러-한 나인 브릿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는가. 러시아와 한국의 조선,수산, 일자리, 에너지등 9개 분야의 경제 협력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다 '러-한 시민사회 교류'라는 하나의 다리를 더 보태 '러-한 텐 브릿지' 정책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

러시아와 한국 간 시민사회 소통의 첫 단추가 재한 러시아인 자녀들의 이중언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러시안 칼리지 부산'을 하루빨리 '이중언어 대안학교'로 인가해 주면 고맙겠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중언어 대안학교'를 거쳐 러-한 시민사회를 소통시키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프리마미디어 한국 특파원 박기섭 기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заочном конкурсе "Я люблю тебя, жизнь!", посвященном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XXVIII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Гринландия-2020" имени Иосифа Кобзона.

Для этого авторам слов и музыки, композиторам, поэтам или творческим коллективам необходимо до 15 марта 2020 года направить заявку (с приложением текста песен или стихов и аудио- или видеозаписью)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grinlandia-kirov@mail.ru, по адресу: 610000, Киров, улица Ленина, 80 (с пометкой: для некоммерческого фонда поддержки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со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программ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Гринландия") либо в группе проекта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ВКонтакте".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оложением о конкурсе, условиями участия в нем и формой заявки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фестиваля "Гринланд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나는 전설을 그린다> 사할린의 화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시회 개최

물고기 가죽 위에 그림을 그리는 우일타의 장인 베로니카 오시포바의 전시회가 인권과 기업 활동의 문제에 따른 제8차 유엔 포럼 개최의 일환으로 제네바 유엔 사무소 본거지에서 개최되었다. 전시회는 유엔 러시아 연방 영구 대표, 유엔 국제조약 대표, <사할린 에너지>회사가 주최했다. 사할린의 북방 원주민 중 소수 민족인 우일타족은 물고기 가죽을 이용해 생활도구, 의복, 신발, 가방, 기타 생활용품을 만들고 있다. 베로니카는 독특한 재료에 영감을 붙여 넣어 자기 민족의 구전과 전통적 생활을 무대 그림 방식으로 예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해냈다.

전시회에는 베로니카의 작품 10개가 전시되었다.

"사람의 지문처럼 물고기 가죽은 그림 같고, 독특하다. 물고기 가죽에는 아무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 단지 몇 개의 선만 더하면 된다. 나는 30년 이상을 이 독특한 재료와 함께 하여 떠날 수 없다. 자주 손수 물고기 가죽을 준비하기도 하고 가끔은 사람들이 가져오기도 한다.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조상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 다양한 시기에 언어학자와 문하인류학자들이 수집한 전설과 이야기들을 출판하고 있고 나는 이 전설들을 묘사하고 그것들은 소생한다."고 베로니카 오시포바가 말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포럼의 일환으로 북방의 놀라운 세계를 접하고 우일타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공식 행사 후 화가는 그림을 소개하며 자신의 작품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베로니카 오시포바의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3번째다.

첫 번째 전시회는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 두 번째는 모스크바 <북방의 보물> 국제 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В Женев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Я рисую леге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художницы

Выставка уйльтаинской мастерицы Вероники Осиповой, которая рисует картины на рыбьей коже, открылась во Дворце наций в Женеве в рамках проведения 8-го форума ООН по вопроса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Постоянн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 ООН, Глобальный договор ООН и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Уйльта, малочисленный народ из числа коренных жителей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спользуют рыбью кожу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хозяйственной утвари, одежды, обуви, сумок и других предметов быта. Но Вероника вдохновилась уникальностью материала и воплотила свои творческие задумки в виде изображения сцен из традиционной жизни и устных сказаний своего народа.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десять работ художницы.

— Кожа рыбы настолько живописна и уникальна, как отпечатки пальцев человека, что даже не нужно ничего на ней рисовать, лишь добавить несколько штрихов. Это удивительный материал, с которым я не могу расстаться уже более 30 лет. Чаще готовлю его сама, но иногда также приносят люди, — рассказала Вероника Осипова. — Мы сохраняем память о своих предках разными способами: издаются легенды, сказания, которые были в разное время собраны лингвистами и этнографами. А я эти легенды иллюстрирую — и они оживают.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благодарили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коснуться к удивительному миру северного края и узнать о народе уйльта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й части художница провела экскурсию и рассказала про каждую из своих работ. Это уже третья выставка Вероники Осиповой в этом году: первая прошла в штаб-квартире ООН в Нью-Йорке, а вторая —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и-ярмарки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в Москв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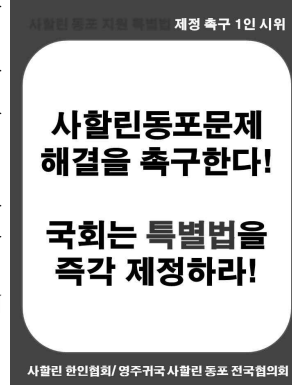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 활동

(1면의 계속)

시민서명에서 서명자들은 하고 싶은 말을 통하여, "영주귀국 대상자 넓혀달라!" "자녀들과 같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중국적 부탁합니다" 등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는 뜻을 모았다.

한편, 그동안 외교적 마찰,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외교부가 입장을 바꿔 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의사일정이 확보될지는 불투명하다고 KIN 사무국이 전했다.



Заказывай еду онлайн



eda.sakh.com



ООО "Сах.ком", ОГРН 1046500642264,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з. (주.필) 배 위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